

농어촌공사, '꿀벌 귀환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토론의 장 마련 -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악화로 꿀벌 개체수가 갈수록 줄면서 식량안보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꿀벌 귀환 국제 심포지엄'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오는 28일 열린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주한 슬로베니아대사관, 한스자이텔재단 한국사무소, (사)양봉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꿀벌 귀환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 업무협약(MOU)*'을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꿀벌 실종 문제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 극복 등 인류와 동식물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마련되었다.

[꿀벌 귀환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 업무협약(MOU)]

공사 ESG경영 활동으로 전개된 '꿀벌 귀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사-슬로베니아대사관-한스자이텔 재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공사가 보유한 저수지 주변 유희부지에 쉬나무(Bee-bee Tree) 등 밀원수 식재를 통해 꿀벌의 중요성과 생물 다양성의 가치 증대를 도모하며, 이번 '꿀벌 귀환 국제 심포지엄' 또한 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기후 변화에서 지속 가능한 양봉 기술과 양봉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슬로베니아,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초청된 전문가들이 국가별 양봉 현황과 양봉 기술,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을 다룬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꿀벌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부	책임자	부 장	김관호 (031-400-1626)
		담당자	과 장	김경미 (031-400-1864)